

민선7기 새로운 도약 군산시정 4개년 계획 시민보고회 개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이 직접 시민 앞에 보고자로 나서 소통

새로운 도약 다시 시작하는 군산이라는 이름으로 민선 7기 4년간의 군산시 시장운영 계획이 완성됐다. 시에 따르면 민선7기 시장운영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0월 8일 시청 대강당에서 시민보고회를 통해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밝혔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시민보고회에서 민선7기 시장비전 및 시장운영 방향 핵심사업 등에 관한 내용을 PPT를 활용해 직접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보고회는 통상적으로 국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시장에게 업무보고를 한 후 언론을 통해 그 내용을 발표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이 직접 시민 앞에 보고자로

나선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올해 초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한 민선7기 김임준은 거는 시민들의 기대에 직접 응답하고 무엇보다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민의 참여 속에 시장을 이끌고자 하는 강입준 시장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시민보고회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행사 당일 보고회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강 시장의 발표 후에는 즉석에서 시민들의 의견 및 정책제안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민선 7기 시장운영 방향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시작으로 앞으로는 매일 정례적인 시민과의 대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시민 토론회 등을 통해 행정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의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군산시는 이를 위해 먼저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 시민참여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군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앞으로 군산시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또한 시민의 세금은 어떤 사업에 쓰일 것인지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시민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보고회가 시민들이 시정에 더욱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는 별도의 홍보예산을 들이지 않고 기존에 설치된 전광판과 SNS 등을 최대한 활용해 시민보고회 개최를 알릴 계획이며, 각종 시민사회 단체에도 보고회 안내를 통해 각계각층 및 다양한 의견을 가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산=김정훈기자

군산시, 2018 전국체전 앞두고 막바지 현장점검

군산시는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18 전국 및 장애인체육대회 의 종무별 경기장 현장을 찾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현장을 찾은 이승복 부시장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 받았으며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은파호수공원 내 카누 경기장과 정비가 완료된 월명종합경기장 등 종무별 경기장 점검을 실시했다.

군산시는 2018 전국체전에 대비해 지난 3월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금강축구장 인조 잔디 교체, 월명야구장 인조 잔디 교체 및 내외야 안전펜스 보수, 군산대체육관 탁구장 LED 투광등기구 33개 설치, 금강하굿둑 조정경기장 부지정비, 군산호수 수상스키장 선착장 바지선 임시시설물 설치, 은파호수공원 카누 경기장 계류장 설치 등 경기장별 보수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승복 부시장은 "전국체전이 개최되는 동안 군산을 방문하는 선수와 가족들이 안전하게 경기를 치루고 돌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막바지까지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점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시의회-군산교육지원청, 교육현안 간담회 개최

군산시의회는 지난 28일 군산교육지원청 장차사 및 관계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시의 교육 현안 논의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앞서 김경구 의장은 책임교육과 한발 더 나아가는 혁신교육의 정착을 위해 교육 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교육지원청 및 교사들을 격려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군산교육지원청 측은 현재 추진 중인 특색 사업을 소개하고 교육 협력 사안으로 혁신학교 특구 지정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2019년도 군산교육지원청 사업설명회 및 군산시 교육발전 방안 등 군산시가 당면한 교육발전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주광순 교육장은 "학생이 행복한 명품 군산교육을 만드는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며 "의회에서 군산교육청의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역점사업 및 지역이 함께 협력해 만들어 가는 혁신학교 특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경구 의장은 "시의회에서는 군산교육 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뿐 아니라 이번에 제시한 협력 사안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밝혔다.

/군산=김정훈기자

익산시, 미세먼지 농도 확인 신호등 · 경관조명 설치

익산시가 공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신호등 10대와 경관조명 1개소를 설치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유동인구가 많은 관내 7곳(매산공원, 모현공원, 영등시민공원, 영등근린공원, 익산역, 공설운동장, 예술의전당)과 초등학교 3곳(이리초, 부송초, 영등초)에 설치하였고, 경관조명은 중앙체육공원 운동장 캐노피에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한다.

/익산=우병희기자



군산시는 더불어 성장하는 자립형 평생학습도시라는 비전을 갖고 시민들이 미래사회 문화시민 역량을 갖춘 평생학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사업을 신규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확대 운영

군산시는 더불어 성장하는 자립형 평생학습도시라는 비전을 갖고 시민들이 미래사회 문화시민 역량을 갖춘 평생학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사업을 신규 운영하고 있다.

군산시는 더불어 성장하는 자립형 평생학습도시라는 비전을 갖고 시민들이 미래사회 문화시민 역량을 갖춘 평생학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사업을 신규 운영하고 있다.

'동네문화카페' 사업은 1카페(상가)당 1강좌, 1강사 당 1강좌 원칙으로 지난달 28일까지 1차 신청을 받았으나 사업설명회 및 의견수렴회를 통해 오는 5월까지 1카페(상가)당 2강좌, 1강사 당 2강좌로 확대에 신청을 받는다.

민약 이 기간까지 접수가 미달일 경우 이번달 31일까지 3강좌까지 확대해 수시로 신청 받을 예정이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찾아가는

익산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익산시는 지난 28일 시청 회의실에서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박철용 부시장 주재로 추진과제 부서장 및 담당계장, 용역수행기관인 (사)전북행정평가연구원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결과보고, 인구정책 추진계획(안), 관련부서 의견청취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용역은 익산시 인구감소에 대응한 종합적인 인구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 5월 시작됐으며, 인구감소 원인 분석 및 우수사례, 시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인구정책 추진과제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부서 의견교환 및 시민 토론회 개최를 거쳐 최종안을 수립하게 됐다.

한편 보고회에서는 익산시의 인구구조 현황, 정부정책 및 우수사례 분석,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구감소 원인에 따른 인구정책의 방향 및 본연의 인구정책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익산시 인구구조는 도내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인구감소 원인은 저출산 및 젊은층의 타지역 유출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시민 의견조사에서는 일자리 부족 및 열악한 정주여건을 인구감소의 주 원인, 경제적 부담과 결혼 기피 요인 변화는 결혼 기피 및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익산시 인구정책 추진방향으로는 청년 지역 정착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해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 결혼·양육 지원,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농촌지역 활력을 위한 청년층 농촌인구 유입 및 귀농귀촌 기반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을러 주유 인구정책 추진과제로 결혼장려를 위한 중소기업 취업 신혼부부 수당 지원, 청춘일자리 지원을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한 반려동물 식품산업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 농촌지역 활력을 위한 도시형 농촌활동 지원 등을 제안했다.

박철용 부시장은 "인구가 감소하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지역발전의 동력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우리 시 인구가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으므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전 부서에서는 인구관점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해주시기를 바라며, 보고회 의견 및 문제점 검토를 거쳐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익산=우병희기자

제약업계 마더스제약, 익산 투자

일반산단 3만8361㎡ 부지 2025년까지 550여억원 투자 100여명 이상 일자리 창출 기대

익산시는 지난 28일 정현을 시장, (주)마더스제약 김좌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투자를 위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마더스제약은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부지에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550여억원의 투자를 진행할 계획으로 총 100여명 이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이로써 제3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은 65%를 넘어사게 되고, 향후 가동이 본격화되고 고용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더스제약은 2011년 아남제약을 인수해 설립된지 채 10년도 되지 않아 천연물 전문의약품 골관절 치료제 '레이브' 등 질환별 20여개의 자사 제품과 위·수술 생산을 전문으로 해마다 고성장 중인 기업으로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합성신약, 천연물신약, 개량신약 등 신약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콘터800, 우루큐백정, 이드레큐정 등 기존 160여개에 이르는 일반의약품은 물론 건강기능식, 화장품 등 생산·유통망도 갖추고 있어 외형적 확장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매출액은 800억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전망되며, 2030년까지 매출 1조원대 달성 목표로 하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환영사에서 "익산에 애정을 갖고 투자를 결정해주신 김좌진 대표와 회사 관계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특히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제약업계의 익산 투자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N.S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